

맑을淸淸에 글썽 문자이라. '맑은 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출판사 '청문각'은

한국기초·응용과학의 디딤돌이 될 수도 높은 책들을 출판해오고 있다.

맑을淸淸은 사념 없음, 탐욕 없음으로도 풀이되는데, 그것에서 역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청문각의 책이다.

청문각 김홍석(64) 대표가 거듭 밝히는 출판정신은 '이바지'다.

“출판을 통해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김 대표의 말은, 맑음과 사념 없음을 함께 품고 있는 사명社名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 더욱 미덥다.

1974년에 설립해 30년 내리 청淸淸의 기운을 이어가는 청문각의 문을 열어보자.

과학기술과의 동행

30년,

“청淸淸의 기운으로

신학문의

디딤돌 놓았습니다”

(청 . 문 . 각 .)

과학기술발전에 바쳐진 청문각 30년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명사에 입사해 10년 동안 출판 일을 배웠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의 아들인 최한용 박사가 맡고 있던 출판사였지요. 이공학도라는 핸디캡 때문에 밑바닥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엇이 두려울까했던 패기만만한 시절이었지요.”

김 대표는 10년간 몸담았던 동명사를 나와 청문각을 차렸다. 과학기술출판을 담당했던 동명사였던 터라 청문각의 출판분야 역시 그것으로 정해졌다. 당연한 순서 같지만 과학기술출판을 맡겠다는 것은 얼마간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 전문출판사가 100여 곳이 넘지만, 당시만 해도 형설, 문운당, 전과과학사 등 열 손가락에 지나지 않았다. 설계도면과 도판 삽입 등 제작이 까다로운 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았고, 판매 역시 특



정독자에게 한정된 탓에 덤벼들기가 꺼려지는 분야가 과학기술출판이었다.

“오랫동안 경험한 분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좋은 과학기술서적을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출판사의 경영자로 나선 만큼 이공학도라는 출신배경은 장점이 될 것이라 여겼지요. 여러 난점보다 제 의지가 더 승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과학기술출판의 매력을 안겨준 책은 청문각 경영 초기에 낸 《환경공학》. 미국 켄사스 대학과 퍼듀 대학에서 환경공학으로 각각 박사 학위를 받은 최의소 교수와 조광명 교수가 공동집필한 책이다. 환경공학이란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때라 원고를 검토한 여러 출판사는 출판을 거절했지만 김 대표의 느낌은 달랐다. 과학기술분야가 주목할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김 대표는 곧장 두 저자와 출관계약을 맺었다. 김 대표의 판단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초기 판매는 미미했지만, 한두 해 지나 손을 타기 시작한 책은 이공학도들의 필독서로 손꼽히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환경공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급상승한 것이다.

“최근까지 판과 쇠를 계속할 만큼 사랑받는 책입니다. 30년 가까이 읽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과학기술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랄 뿐이지요. 청문각 시작에서 오늘까지 함께 하는 책이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환경공학》 덕분에 출판경영의 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획과 저자를 찾아 더욱 열심히 뛰었지요.”

김 대표의 열정은 청문각이란 이름을 달고 출판된 1,200여 종의 책이 증명한다. 필진을 짚어보자면 기계공학 분야에 강명순 한양대 명예교수, 물리학 분야에 안세희 연세대 명예교수, 토목·건축 분야에 윤용남 고려대 교수, 화학공학 분야에 박내정 홍익대 교수 등 유수의 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석학들은 청문각을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렸고, 그것으로 공부한 이공학도들은 오늘 명망 있는 석학이 되어 있다.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좋은 책을 찾아 발로 뛰는 김 대표의 열정은 젊은 날 못지않다. 가만히 앉아서 기획안에 이름 석 자 사인하고,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할일이 못 된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방문한 김 대표는 북한관에서 《5개국어과학기술용어사전》 수입계약을 맺고 돌아왔다. 과학기술용어가 집대성된 점도 흠족했거니와 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대역된 책은 학계가 두고 보아야 할,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이었다.

과학기술발전에 바쳐진 청문각 30년 궤적에는 그 공로를 치하한 포상도 여럿이다. 1984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문공부장관상을, 1998년 책의 날 대통령 표창을, 지난 4월에는 과학의 날 과학기술훈장 응비장을 받았다. 청문각의 양서들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청문각은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에서 1998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2종 이상의 책을 목록에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차랑스런 한양인’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모교에서 주는 상인 만큼 더욱 기쁩니다.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람이란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청문각의 책이 한국 과학기술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알 때 가장 뿌듯합니다.”

1 2 3

1 청문각 식구들과 함께 2 과학기술발전에 디딤돌이 된 청문각 책들 3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좋은 책을 찾아 발로 뛰는 김 대표의 열정은 젊은 날 못지않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방문한 김 대표는 북한관에서 《5개국어과학기술용어사전》 수입계약을 맺고 돌아왔다.



특별한 부자父자의 특별한 경쟁

청문각 경영 일선에는 김 대표만 있지 않다. 김 대표의 아들 한승 씨가 함께 나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2세 경영이야 많은 출판사들이 갖는 특징인지라 뉴스거리가 못 된다고 하지만, 청문각만은 그 사정이 다르다. 김 대표가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한승 씨가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출판에 몸을 던진, 부자의 공통점이 흥미롭다.

“내가 필요하다.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 말에 아들이 선뜻 공감을 하더군요. 출판대학을 등록해 다니며 상당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과학신서를 담당할 자회사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바로 일을 진척시켰지요. 아들 이름을 딴 ‘한승’으로 출판사를 등록한 뒤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청문각과 한승 간 실력의 우열을 견주어보는 일은 무의미하겠지만, 청문각 30년 아성에 도전할 만큼 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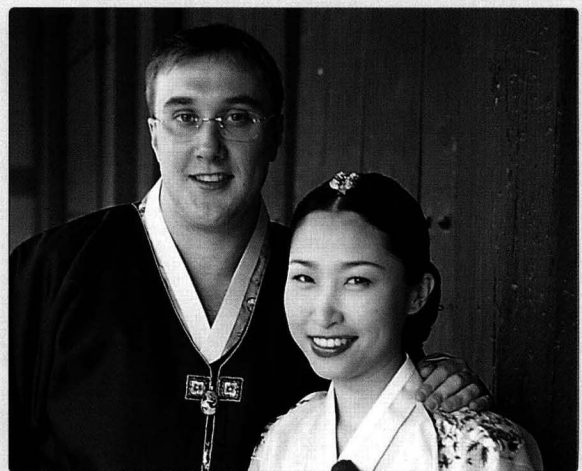
성큼 내딛는 한승의 보폭은 주목된다. 최상일 교수의 《소매치기도 뉴턴은 아니다》가 베스트셀러로 인기몰이를 하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한승은 《요리의 과학》《파인만 강의》《웃기는 과학》 등 과학의 이면을 조명한 알록달록한 책들로 연타석 안타를 때리며 ‘대중과학출판하면 한승’이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최근 출간된 《길들여지지 않는 날씨》와 《미래 동물 대탐험》은 언론매체의 신간안내 지면에 앞 다투어 소개되며 칭찬을 받기도 했다.

“아들의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전문적인 경영을 해보고 싶다면 유학을 떠났지요. 뉴욕대학교 출판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는데 내년이면 돌아와 합류할 겁니다. 한승에는 실력자가 많습시다. 이충미 편집부장은 여기저기서 탐을 내는 인재입니다. 게러스 데이비스 역시 좋은 외서를 소개해 한승 이름을 알리는 데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한승에서 근무하는 게러스 데이비스는 유명인사다. 출판인력 외국인 1호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고, 최근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 ‘영국 사위 게러스’ 편에 출연, 외국인 데릴사위의 고충과 행복을 보여주며 스타덤에 올랐다. 게러스 데이비스의 전 직장은 과학 전문출판사로 유명한 영국의 Elsevier science. 그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외서들을 가려 소개하고 있다.

“사랑 때문에 국경을 건넌 재미 있는 친구지요. 메일을 통해 게러스의 입사지원서를 보았습니다. 실력도 있고 성실한 것 같아 함께 일해보자고 했지요. 출퇴근도 확실하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직장문화가 영국과 다를 텐데도 제법 일찍 적응하더군요.”

산업공학과 출신이라는 부자의 공통분모뿐 아니라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었던 셈이다. 청문각은 고색한 이



2
1

1 김 대표의 꿈은 청문각을 종합출판사로 키워기는 것이다. 실용서를 전문으로 하는 렉스미디어와 아동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렉스키즈를 차린 것도 종합출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2 출판인력 외국인 1호로 세간에 화제가 된 게러스 데이비스.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 ‘영국 사위 게러스’ 편에 출연, 외국인 데릴사위의 고충과 행복을 보여주며 스타덤에 올랐다. 오른쪽은 부인 미경씨.

청문각에서 추천하는우리 출판사 이 책!

청문각의 책

《**환경공학**》 최의소·조광영 지음 | 662쪽 | 값 25,000원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필요한 물리·화학 및 생물학을 토대로 도시상수와 하수, 공업용수와 공장폐수의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공기 오염의 제거와 예방책, 도시 폐수물의 수거와 처리방법, 토양오염, 소음 및 진동 등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여러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청문각 경력 초기에 출간된 책으로 지금까지 판과 색을 거듭할 만큼 사랑받는 과학기술 전공서의 고전이다.

《**기계제작법**》 Ostwald 의 지음 | 강영순 의 옮김 | 822쪽 | 값 30,000원

현대의 광범위한 기계제작법을 폭넓게 설명한 전공서. 제작시스템, 재료의 본질과 성질, 철금속의 제조, 비철금속 제조, 주조, 현대식 주조방법, 공작기계 기본요소, 금속절삭, 전자부품 제조 등 전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영순 한양대 명예교수가 노년의 열정을 바쳐 번역한 전공서로 출간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승의 책

《**소매처기도 뉴턴은 안다**》 최상일 지음 | 294쪽 | 값 9,000원

회전하는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밀물과 썰물이 왜 하루에 두 번 있을까, 술주정뱅이의 유전자는 따로 있다던데, 왜 주전자의 손잡이는 플라스틱일까, 도시에서도 신기루를 볼 수 있나 등의 이야기를 통해 과학이 추구하는 지식들을 알려준다. 한승 브랜드를 널리 알린 책으로 제20회 한국과학기술도서 저작상을 수상했다.

《**미래 동물 대탐험**》 두걸 덕슨·존 애덤스 지음 | 김웅서 옮김 | 158쪽 | 값 23,000원

향후 2억 년 동안 지구의 생물은 어떻게 진화할까, 어떤 생물이 육지를 거닐고 바다에서 헤엄칠까 등 놀라운 미래 생물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 넣은 책. 단순한 상상력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생물학 법칙과 진

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엄격한 원칙의 산물이다. 미래의 생물로 방울쥐, 부식박쥐, 은거미, 왕머리가재, 코끼리오징어 등이 등장한다.

럭스미디어의 책

《**시시콜콜 잡학사전**》 고바시 이카히코 지음 | 유현이 옮김 | 260쪽 | 값 8,000원

일본의 인터넷 매거진 '시시콜콜 잡학'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엮었다. 황금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남자도 임신할 수 있을까, 술주정뱅이도 유전이다 등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시시콜콜 궁금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자세하게 답한다. 2004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도서상 일반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포토리딩 풀R, 쉼리 지음** | 박연선 옮김 | 292쪽 | 값 10,000원

책을 10배 빨리 읽는 독서기술을 비롯해 정보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책이다.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IBM, 애플컴퓨터, 3M 등 미국의 일류기업 사원이 연수한 최강의 비즈니스 툴 '포토리딩'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럭스키즈의 책

《**친구야! 어떻게 과학을 그렇게 잘 하니?**》 재키 베일리, 매슈 릴리 지음 | 이경아 옮김 | 116쪽 | 값 9,000원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상식을 담고 있다. '공룡 화석이 만들어진 이야기', '낮과 밤이 생기는 이야기', '물이 순환하는 이야기' 등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책은 만화라는 장르를 도입해 아이들의 이해를 쉽게 했다. 과학적 상상력을 쑥쑥 키워준다.



름과는 달리, 출판계의 뉴스거리를 쏟아내는 화제의 출판사다.

김 대표의 꿈은 청문각을 종합출판사로 키워가는 것이다. 실용서를 전문으로 하는 럭스미디어와 아동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럭스키즈를 차린 것도 종합출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청문각이나 한승과 달리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자회사는 특색 있는 책을 내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럭스미디어에서 출간된 《시시콜콜 잡학사전》은 2004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도서상에서 일반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을유문화사 정진숙 대표님께서 출판계의 영원한 현역이고 싶습니다. 아흔 둘의 연세에도 주간회의에 꼭 참석하신다지요. 무엇보다 인화단결이

잘 되는 청문각 직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창의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싱크Think’라는 얘기를 즐겨 하지요. 저 자신에게는 ‘Never Give up’이란 말을 합니다. 영국의 처칠 경이 즐겨 쓴 말인데, 청문각 30년을 이끈 동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과학기술은 적어도 그렇게 발전해 왔다. 김 대표는 과학기술출판을 맡고 있는 청문각의 움직임은 그보다 반걸음 더 빨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공학 출신의 부자가 의기투합한 만큼, 속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도 덧붙인다.

“많은 이공학도들, 더 크게는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신학문의 디딤돌을 놓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문각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반려자죠.”

취재 | 박용두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

